

"너는 누구냐"-그 음성이 물을 때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94장	다함께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5:18-20	다함께
¹⁸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한 줄을 알라 ¹⁹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²⁰내가 너희에 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 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 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2026. 9. 6. 주일예배 설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는 데 먼저 가지만, 사실 미움의 문제는 내가 특정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 오는 결과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은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19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출처와 소속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체성은 어떤 본질이나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본질적인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1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허망하게 살아가던 나를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내가 의지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게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고 고백합니다.

※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정체성은 단순히 정체성이 아니라 내 소속입니다.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이면 나는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세상의 체계와 질서와 이념을 좇아갑니다. 반면에 예수께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그분의 품격이 내 인격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합니다.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이것을 묻고 행동합니다.

※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를 묻고 행동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미움이 나옵니다(18절). 이 미움은 내가 고집을 부리거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받는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내 가슴에 심어 주신 사랑으로 살려고 하다가 갖게 되는 갈등과 대립과 미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정하고 싶지만 양심이 내 안에서 “그것이 옳다” 고 말할 때, 미움받을 용기를 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상’ 은 단순히 교회 밖의 이방 세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경영논리와 성공주의와 탐욕이 들어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은 교회 밖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결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 다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쳤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공의를 놓쳤다면 그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15:26),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어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십니다(요 16:33).

※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 나눔

① 요한복음 15장 18-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까?

(힌트: ‘미워하다’, ‘속하다’, ‘택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②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에게,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요즘 나의 삶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속’과 ‘시선’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돈과 성공, 직분과 역할, 가족과 자녀, 예수님의 말씀과 뜻)

③ 교회 안에도 세상 것들이 들어와 왕노릇할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과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보다 결과를 앞세우는 태도, 비교와 경쟁, 인정과 힘을 추구하는 마음, 사랑과 정의를 뒤로 미루는 모습)

④ 그 외에 이번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와 위로, 격려와 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